



(주)건화엔지니어링은 토목부문 전 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설계용역 회사로서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표하는 상위권 회사이다.

“21세기 최고의 엔지니어링 구현”이라는 경영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주)건화엔지니어링 정조화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부회장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환경공학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군대는 ROTC 7기로 공병 중위로 근무하였습니다.

1972년 건설교통부에 들어가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동분야의 전문기술자가 되었고 상하수도 기술사도 취득하였습니다. 1980년부터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주)건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공적생활부터 건설기술용역회사까지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데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건설교통부 시절 초대형프로젝트인 수도권광역상수도 사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한강 상류인 팔당댐의 깨끗한 물을 취수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에 원수 및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시작 당시 제 1, 2단계 시설용량만도 하루 260만 m³ 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엔 그 많은 물을 누가 다 먹느냐고 의아심을 자아낼 정도의 대용량의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광역상수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시초이면서 IBRD차관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기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의 설계 및 건설입니다. 1980년대 초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절 서울 중

랑, 대구, 울산, 반월 등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본인이 직접 책임자로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무에서 유를 참조하였다는 자부심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Q. 평소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엔지니어는 국가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실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화합을 통해 21세기 최고의 엔지니어링을 구현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엔지니어링 업계의 전문가로서 현재 동업계의 외국 진출이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도 국내의 제한된 일량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의 진출을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이 진출함으로 건설 및 기자재 판매시장도 우리나라에 유리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기술사들의 세부 전공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기술사의 경우 예를 들면 정수처리, 하수처리, 배수관망 등의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실력을 갖춘 기술자가 되어야 외국 기술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및 리포트 실력을 평상시 틈나는 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Q.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한 좌우명은 없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정무용 위원장님께서 어디 좋은 신랑감 있으면 중매 좀 서주세요. 집사람은 안으로는 살림하고, 밖으로는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 주십시오.

요즘 한국기술사회 활동사항을 보면 기술사 주관부서 일원화 추진을 비롯하여 특급기술자 제도개선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사들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게 사느라, 한국기술사회를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미력하나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가기술 최고의 자격인 기술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여 글로벌 무한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같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평생교육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乙酉年 새해 모든 기술사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자신의
의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개발
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화합을 통해 21세기 최고의
엔지니어링을 구현하자”**

일 시 : 2005년 1월 13일 14:30
장 소 : (주)건화엔지니어링 부회장실
참석자 : 정조화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총보위원장, 김경수 대리